

- 불시점검시 안전 위반자에게 경고장 발부 -

#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서는 『강릉아산병원』

조태업 | 경영기획부 홍보팀 차장

## ■ 강원도에 개원한 설립자의 배려

가난해서 고통받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을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취지 아래 설립된 강릉아산병원은 지방화 시대라는 시대적 여망과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취약했던 영동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996년 11월 개원하였다.

2002년 4월 아산재단의 설립자인 고(故) 정주영 이사장의 아호 ‘峨山’을 형상화한 심볼 및 현재의 이름으로(舊 아산재단 강릉병원) 다시 태어난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6년여 동안 영동지역은 물론 강원도의 중심병원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웨움은 물론,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안락한 병원시설을 통해 환자중심의 초일류병원이 되고자 힘쓰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병원동 외에 11개의 부속동으로 이루어진 강릉아산병원은 대지면적 29,075평, 면적 21,300평의 건물로 총 639개의 병상(일반병상 529 병상, 특수병상 10 병상)과 CT, MRI, ANGIO 등의 고가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푸른 동해와 송림으로 둘러싸인 강릉아산병원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울산의대 교육협력병원으로서 대부분의 스텝들이 교수로 임용되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료 및 연구, 교육에 힘쓰고 있어 서울 소재 대학병원과 견줄만한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치하고 있지만 울산의대 교육협력병원으로서 대부분의 스텝들이 교수로 임용되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료 및 연구, 교육에 힘쓰고 있어 서울 소재 대학병원과 견줄만한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 자율적 책임으로 이뤄진 팀원

강릉아산병원의 시설 및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 권영복차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다.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화보협회 안전점검 인터뷰 장면. 우로부터 강릉 아산병원의 권영목처장, 이영웅계장

주었다. 따라서 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있어서 소신과 책임을 갖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 ■ 비상시 대처능력을 위한 꾸준한 교육훈련

매월 전직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병동별 대피요령 및 분기별 조직도에 의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소방서와 연계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시 대처능력 및 기능별 업무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질문 및 즉석 퀴즈 이벤트를 통해 우수자와 당첨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안전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설과 전직원(34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분기별로 상황을 부여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200여명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는 지난 1998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강원도로부터 우수 본대로 표창장을 수여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 ■ 유사시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방화시설

방재실에 HII-MUX R형 시스템을 1층에 설치, 병원동과 부속동의 화재 유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층의 중앙감시실에 경보를 동시에 발령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병원동의 취약지구에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중앙감시실에서의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권처장은 개성이 강한 구성원들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병원동에는 자동소화설비로 중요 의료장비 및 전산기계실, 수변전실, 발전실 등에 청정 소화약제인 ‘NAF S-III’를 설치하였으며, 병원의 특성상 모든 시설을 초기에 소화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자동 설정 상태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 ■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경영진의 배려

강릉아산병원 시설과에서는 직원들에게 안전을 생활화하고 무재해 운동을 활성화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안전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위험성이 제일 높은 주방과 기숙사 등은 월 2회 불시점검을 통해 지적 확인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안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과원들이 긍지를 느끼는 것은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모든 시설은 안전에 우선하여 설치 및 관리, 보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소방서 및 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서 보완 및 시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하여 처리한다고 한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산가액의 100%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 방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

강릉아산병원은 짧은 연륜에 놀라운 의료성과에 못지 않게 각 분야별로 종사자들의 도전의식과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끝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시설과에서도 방재업무의 질적 향상 및 선진 방재기술의 습득을 위해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방재기술 실무교육’ 등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